



에덴뉴스

2018년 9月
통합 12-79호

03 에덴의 소식

에덴요양병원의
소식을 알립니다.

04 행복칼럼2018

류태희 목사가 전하는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

05 치유스토리

암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생생한 투병이야기

06 에덴 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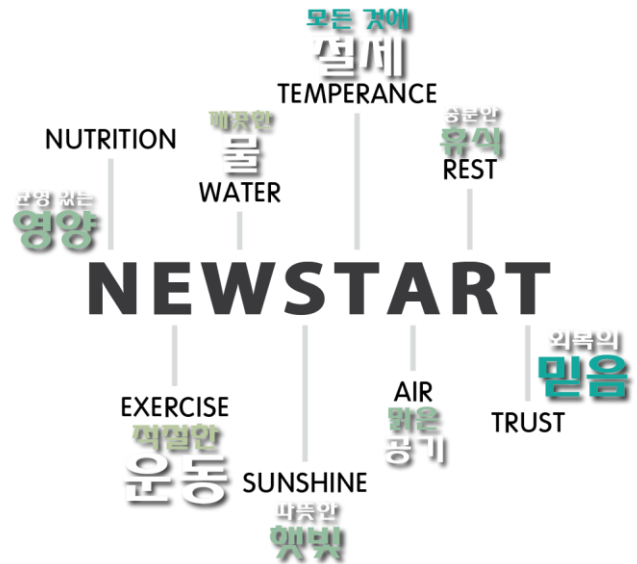
화이팅릴레이/나도 시인
웃어보아요/칭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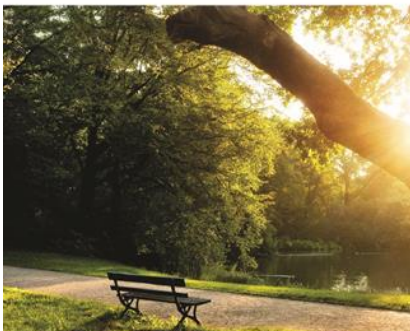
SPECIAL 편집장 특집

새로 시작하는 에덴, 다시 돌아보는 에덴

에덴요양병원에 입원하신 환우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생활습관개선은 반드시 꼭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에덴요양병원은 치료가 목적이 아닌 완치를 최고의 목표로 생활하는 곳입니다.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단순하지만 정말 중요한 여덟 가지의 생활원칙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한 습관의 시작
NEW START
EASH 에덴요양병원



R
Rest
휴식

그 일곱째가 휴식입니다.

휴식(休息)이란 한자를 보면 휴(休)는 사람(人)이 나무(木)에 기대 앉아 있는 모양이고, 식(息)은 자신(自)의 마음(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즉, 휴식이란 나무에 기대어 앉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첫째로는 육신의 쉼, 곧 잠을 휴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시 이전에 취침하는 습관은 질병예방과 건강회복에 있어서 절대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둘째는 마음의 휴식입니다. 휴식은 무(無)활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쉼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 올바른 휴식 ++++

- 10시 이전에 취침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 10시 이전 두 시간의 잠은 12시 이후의 네 시간의 잠과 동일합니다.
- 초저녁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왕성하게 나오는 멜라토닌은 스트레스 정지장치입니다.
-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경우 휴식을 취합니다.



NEWS 에덴의 소식

국제선교대회 홍보



지난 8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에덴요양병원 홍보기획과에서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제선교대회 행사에 참가해 병원을 홍보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몽골 등에서 5,5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기간 동안 3,800여 개의 판촉물을 나눠 주었고, 8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체지방측정과 당뇨검사, 혈당검사를 통해 건강상태를 점검했다.



인도연합회 임원 내방

8월 14일, 국제선교대회에 참가 차 방한했던 인도연합회 임원 일행이 에덴요양병원을 방문했다. 방문자들은 현대의학에 접목된 뉴스타트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는 한편 한국에서 진행되는 생활의학 발전에 부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8월 22일, 외부강사(신지훈)를 초청하여 타인이 아닌 본인에게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유쾌하게 풀어낸 강의를 들었다. 신지훈 강사는 교육에서 지금까지 누군가를 보호해 주는 일은 익숙해 있으나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일은 등한히 하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 강의에 대한 호응을 끌어올렸다.



직원동정

♣ 수고하셨습니다 ♣

박지규(물리치료실) 8월 31일 부
장윤석(한방진료과) 8월 31일 부



행복칼럼[16] 원목실장 류태희

“네가 내 딸이라면 좋겠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12)

그 소녀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화가 났다. 하루하루 사는 게 싫었다. 세상을 증오했다. 언청이, 구부러진 코, 튀어나온 이빨, 왼쪽 귀가 안 들려서 말까지 더듬는 소녀. 학교에 들어가자 친구들이 그를 놀렸다.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무척 싫어하고 혐오한다는 것을 그녀는 분명히 깨달았다. 부모님조차 낯선 손님이 집에 방문하면 “방에 들어가 나오지 말아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웃 아이들은 그녀에게 참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 “넌 입이 왜 그러니?” 그녀는 어렸을 때 넘어져서 땅에 있는 유리 조각에 입술을 찔려 다쳤기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언청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견디기 쉬웠다.

그 소녀는 날이 갈수록 가족 외에는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며 좋아해 줄 사람조차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잘 적응하지 못하다가 2학년이 되어 000선생님이 담임교사가 되었다. 000선생님은 아름답고 따뜻하고 상냥한 분이셨다. 모든 아이들이 좋아하고 존경했지만 그 소녀도 000선생님을 누구보다도 더욱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특별한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학기 중간에 학생들은 ‘귓속말 시험’이라는 시험을 치렀다. 학생들이 차례대로 앞으로 걸어 나가 오른쪽 귀를 막으면 왼쪽 귀에 선생님이 한 마디씩 속삭이는 것이다. 그러면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방금 들은 것을 틀리지 말고 큰 소리로 말해야 한다. 그런데 그 소녀는 선천적으로 왼쪽 귀가 멀어서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그 소녀는 이 사실을 굳이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친구들이 더 놀랄 것이기 때문이었다. 소녀는 귓속말 시험을 대비하여 고민하다가 잘 들리는 오른쪽 귀를 조금 열어놓으면 잘 들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놀이를 할 때 학생들이 귀를 잘 막았는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같은 반 학생들은 모두 귓속말 시험을 잘 치루었기 때문에 기분이 들떠 있었다. 앞서 시험을 끝낸 아이들은 “하늘은 파란색이다”, “너는 새 신발이 있니?” 등과 같은 말씀을 선생님이 들려 주셨다고 말하며 대화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차례였으며 드디어 자기의 차례가 되어 선생님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소녀는 선생님이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할까 매우 궁금해 하면서 선생님께 왼쪽 귀를 돌려 대고 오른쪽 귀를 막았던 손을 살짝 들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선생님의 말씀을 기다렸다.

- ★ 감동나누기 : 글을 읽고 느낀 소감을 보내주시면 두 분을 선정하여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 ★ 보내실 곳 : 에덴요양병원 원목실(031-590-7591) 또는 이메일 (eckclth@hanmail.net)



잠시 후, 선생님은 그녀의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 뭐라고 속삭였다. 선생님의 나지막한 속삭임을 들은 그녀는 너무 깜짝 놀라 꿈쩍도 못하고 그만 얼어붙어 버렸다. 눈물이 하염없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학생들은 깜짝 놀라서 모두들 그 소녀를 바라보며 긴장을 하고 있었다. ‘선생님께서 어떤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길래 저 소녀가 저렇게 울고 있을까?’라며 모두들 궁금해 하였다. 그 소녀는 한참을 나무 인형처럼 서 있다가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선생님은 미소를 짓고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셨다. 그 소녀는 선생님 품으로 달려들어 안겼으며 선생님은 그 소녀를 꼭 끌어안고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다.

000선생님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인 말, 그 소녀의 인생을 바꾼 한마디 말은 무엇이였을까? 그것은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였다. 같은 반 학생들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사랑의 말을 선생님은 그 소녀에게 들려 준 것이었다.

그 소녀가 들은 선생님의 세미한 말씀은 따스한 햇살처럼 그녀의 마음을 비추어 주었으며 그것은 점점 커져 그녀의 가슴 속을 가득 채웠다. 그 한마디의 말은 그동안 상처 받았던 외로운 그 어린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으며 그 소녀가 자신의 암울한 삶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희망을 품게 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때부터 그의 새로운 희망찬 삶이 시작되었으며, 공부도 잘하여 우등생이 되었고 반 학생들도 그의 달라진 모습을 반기며 사이 좋게 지내는 친구가 되었다.

죄의 결과와 그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은 오늘도 각종 신체적, 정신적인 질병과 장애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 사단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어 좌절과 낙심과 절망과 죽음으로 우리의 삶을 내 몰아 가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도 속삭이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위로부터 들려오고 있다. “네가 내 아들(딸)이라면 좋겠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사 63:16)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사 64:8)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내 귀에 속삭이신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 아들(딸)이란다. 힘내! 파이팅!!”



STORY 환우 자작 동화

새잎

이혜경

어느 마을 어귀에 떡갈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으흠, 시원한 바람 너무 좋아!"
 새잎이 떡갈나무 가지 끝에서 기지개를 쭉 펴며 외쳤습니다.
 새잎은 이제 갓 태어나 털이 뽀송뽀송했습니다. 새잎은 햇빛을 더 받으려고 고개를 위로 쏘옥 내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막내야, 햇빛이 가리잖니? 조금만 비켜주지 않을까?"
 새잎 때문에 그림자에 잠긴 언니 초록잎이 말했습니다.
 "어, 누구세요?"
 새잎이 초록잎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너보다 먼저 태어난 잎사귀 언니란다."
 새잎은 초록잎을 내려다봤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막 태어나서 몸을 햇빛에 쬐어야 하는데..."
 새잎은 입을 삐죽거리며 초록잎에게 양보하러 하지 않았습니
 다.
 "우리 잎사귀들은 자리를 조금씩 양보해야 돼. 그래야 모두 햇
 빛을 골고루 받고 잘 자랄 수 있어. 잎사귀가 너무 크면 동물들
 의 먹잇감이 되기 쉽단다."
 초록잎의 부탁에도 새잎은 들은 척도 않고 팔을 쭉욱 뻗었습니
 다. 초록잎은 햇빛을 쬐려고 고개를 이리저리 내밀었지만 새잎
 에 가려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가 고파진 노루 한 마리가 마을 어귀까지
 내려왔습니다. 노루는 떡갈나무에 새 잎사귀가 난 것을 보고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노루는 새잎을 먹기 위해 고개를 쭉 뻗
 었습니다. 새잎은 다른 잎보다 더 크고 부드러워서 노루가 먹기
 에 좋았습니다.
 '사삭 사삭'
 "아악! 먹지 마, 나를 먹지 말라고, 누가 날 도와줘요."
 새잎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때였습니다. 바람결을 탄 초록잎
 이 노루의 눈을 똑 찡했습니다. 노루는 깜짝 놀라 달아났습니다.
 새잎은 자기 몸의 절반을 노루에게 먹히고 말았습니다. 귀엽고
 앙증맞던 모습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흐흠, 아파"
 새잎은 온몸의 통증으로 아파서 울었습니다.
 "괜찮아, 상처는 곧 아물거야. 울지마."
 새잎은 초록잎 언니의 위로를 받으며 언니의 충고가 생각났습니
 다. 새잎은 언니 말대로 상처가 점차 아물었습니다. 시간이 지
 날수록 새잎의 부드럽던 손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잎은
 자신이 변하는 모습에 당황하자 초록잎 언니가 자신도 그랬다
 며 위로해주었습니다. 초록잎 언니는 가끔 새잎이 알지 못하는
 여러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세찬 바람과 함께 검은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
 다.
 "드디어 태풍이 온 거야."
 초록잎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언니, 태풍이 뭐야?"
 "남쪽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무지하게 큰 소용돌이 비바람이라,
 나도 처음 만나봐."
 "언니는 모르는 게 없는 거 같아."
 "응, 내 언니가 그 언니의 언니에게서 듣고 알려 준거야."
 "아, 그렇구나!"
 며칠 동안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 닥쳤습니다. 마을 정자에서
 있던 큰 느티나무가 광 소리를 내며 번개에 맞아 불에 타 넘
 어졌습니다. 바로 아래 개울물이 소용돌이치며 불어나기 시작
 했습니다. 갈대 앞에서 웅웅 소리가 났습니다. 새잎과 초록잎
 은 손을 꼭 붙잡으려 했지만 세찬 바람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
 려졌습니다.
 얼마 후 폭풍이 물러가고 하늘이 맑게 갠습니다.
 "언니, 괜찮아?"
 "으.. 왜 이리 어지럽지?"
 새잎이 초록잎 언니를 부르자 초록잎은 파르르 떨며 간신히 말
 했습니다.
 뚝!
 초록잎은 바람을 타고 스르르 어디론가 사라져갔습니다.
 "언니! 언니!"
 새잎은 울면서 언니를 애타게 불렀지만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
 버렸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으흠~ 잘 잤다! 저 뭉게구름 좀 봐, 멋지네."
 쪼그만 어린잎이 기지개를 펴며 새잎 위로 쭉 나왔습니다.
 "흠냐, 흠냐, 맛있어."
 어린잎은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빛을 신나게 먹었습니다.
 어린잎은 금새 쭉욱 쭉욱 자랐습니다.
 새잎은 초록잎 언니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말대로 어린잎에게
 충고해 주었습니다.
 "흠! 누구세요?"
 "나는 너보다 먼저 태어난 새잎 언니야."
 어린잎은 새잎의 말을 들은 척 않고 바람 부는 대로 자신의 잎
 사귀를 이리저리 흔들었습니다. 새잎은 자기가 했던 행동을 똑
 같이 하는 어린잎이 귀엽기도 하고 알뜰기도 했습니다. 새잎은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어린잎도 새잎의 마음을 곧 알
 게 될 거라고!



시 하나

여행 | (마석역 풍경)



구정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시간을 무조건 갈았다
몽롱했던 날들이 차츰 시퍼렇게 닳아 갈 즈음
새상이, 온 우주가 아프다

방금 전철이 지나가고 다음 차까지
25분을 더 기다릴 동안

두건이나 모자를 쓴 사람
추려한 옷차림에 배낭이나
붓짐, 가방을 멘 사람들
더러는 머리카락이 뿌리째 동망 뿜어나간
민승머리의 사람들도 간혹 섞여 있다

재빠 사람에게 눈길 주지 못하고
시선은 발끝으로 혹은
먼 하늘가로 애써 보내는 아들
영혼은 모두 자장 잡고 가운이 얹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불분명한
비행접시를 담은 마석역 플랫폼
바람막이 안 간이차에 앉은 사람들
생을 찾아 떠나는 아들의 우울과
세상을 향한 몸부림이 간절하다

단지 이 역이
그들의 마지막 여행이 아니기를

TODAY 따뜻한 하루

꽃돼지분식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마음의 평온함을 뜻한다
- 시세로 -



춘천에 위치한 5평 남짓한 좁고 허름한 '꽃돼지분식'이라는 떡볶이집이 있었습니다. 가게의 월세는 10만원이지만 주인 할머니는 그 월세 내기도 항상 빠듯했습니다.

“할머니 그만 주셔도 돼요”

저렴한 가격에 너무도 푸짐하게 떡볶이를 계속 퍼주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을 대신해 어머니 곁을 지켰던 외아들 역시도 안타깝게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자 할머니는 슬픔을 떨쳐 내기 위해 계속 떡볶이를 만들었고, 어린 손님들이 배부르게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앞에 큰 도로가 생기면서 할머니 가게는 철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월세 10만원 내기도 어렵던 할머니가 새 가게를 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자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의 나눔과 떡볶이를 먹고 자란 사람들이 꽃돼지분식을 없앨 수 없다면서 우르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가게 간판을 만들어 드리지요.”
“그러면 저는 의자와 테이블을 마련하겠습니다.”
“가게 내부 공사는 나에게 맡겨요.”

심지어 32년간 인연을 맺은 수많은 사람이 십시일반 모금하여 새로운 가게를 위한 보증금까지 마련하였습니다.

새로운 가게를 개점하는 날, 할머니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릇 가득 떡볶이를 퍼주고 계십니다.

출처 : 따뜻한 하루 / www.onday.or.kr

FOOD 몸에 좋은 제철 과일

포도



포도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안토시아닌과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풍부해 암세포를 억제해 주어 각종 암예방에 도움이 된다. 레스베라트롤 성분은 주로 검은 빛을 내는 껍질에 들어 있으니 껍질째로 먹는 것이 좋다. 또한 많은 양의 칼륨이 들어 있어 혈압유지에 도움을 주고 고혈압예방에 좋다. 그 밖에 피로회복, 갈증해소, 빈혈 예방 등의 효능이 있다.



FIGHTING 화이팅 릴레이

관리과 이연휘

수정같이 맑은 물, 상큼한 공기,
아름다운 꽃 등산, 울창한 숲,
아름 고통 슬픔 그리고 사망이 없는 곳
그분의 사랑만이 흘러 넘쳐
영원한 생명이 행복으로 피어난 그 낙원

그곳이 그리워 이곳에 에덴을 그려 놓았습니다.
태초의 그 아름답고 행복했던 낙원이 그리고
걱정 근심 아픔과 눈물 그리고 이별도 고통도 없던
그곳이 그리워 이곳에 에덴을 담아 놓았습니다.
삶에 지치고 생채기 난 당신을 초청합니다.

“내가 네 상처를 치료하여 낮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이곳 에덴에
OO님의 보금자리 하나 준비해 두었습니다.

한센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던 분이,
OO님을 속히 치유하여 건강한 삶을 회복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여호와께서
에덴의 창시자시요 이곳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OO님을 향하여 감미롭고 확신에 찬 사랑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
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 4:2)

에덴요양병원은 기적이 있는 곳입니다.
길르앗 기도의 등산에서, 한적한 산책 길에서,
말씀이 풍성한 예배의 잔치 상에서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원없이 마음껏 담아가세요.
OO님께서 영원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화이팅 릴레이는 에덴직원들이 환우 여러분께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이연휘님이 지목한 다음 주자는 '간호부 서경외님'입니다.



노래배달서비스

소중한 **이**에게 노래 선물하세요

나 자신을 응원하며 스스로에게,
우리 친구 힘내라고 같은 방원에게,
혹은 다른 방원에게,
환우가 직원에게 직원히 환우에게
누구에게나 노래배달을 신청하시면
하침 8시 30분에 직접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프로그램계 사무실에 신청하면 일정을 협의하여 접수해 드리고, 신청자 중 매월 한 분 추천하여 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내선 615)

칭찬합시다~

‘남태희’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웃음치료와 아침체조...
많은 노력이 보입니다. 몸이 아프면서도
보이는 노력은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 210호 허현자 -

‘송정욱’ 목사님을 칭찬합니다.
목사님은 우리를 챙겨 주시면서 저희를
행복하게 해 주시고 기분이 안 좋을 때 기
분을 좋게 해 주세요.
- 직원자녀 남효민 -



편집후기

모든 말이 다 전달되지는 못합니다. 모든 말이 다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한마디의 말이 희망이 되고 확신이 되고 힘 있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행복을 주었다면 성공한 하루를 산 것입니다. 내가 참은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일을 피했다면 드러나지 않아도 난 오늘 하루를 멋지게 마무리 한 것입니다. 멋진 삶은 한마디의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 에덴뉴스 편집장 행복돌쇠

에덴요양병원은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홈페이지 www.edenah.com
- 블로그 blog.naver.com/edenah
- 유튜브 www.youtube.com/user/TVEdenah
- 페이스북 www.facebook.com/Edenhospital
- 트위터 twitter.com/Edenhospital

검색창

에덴요양병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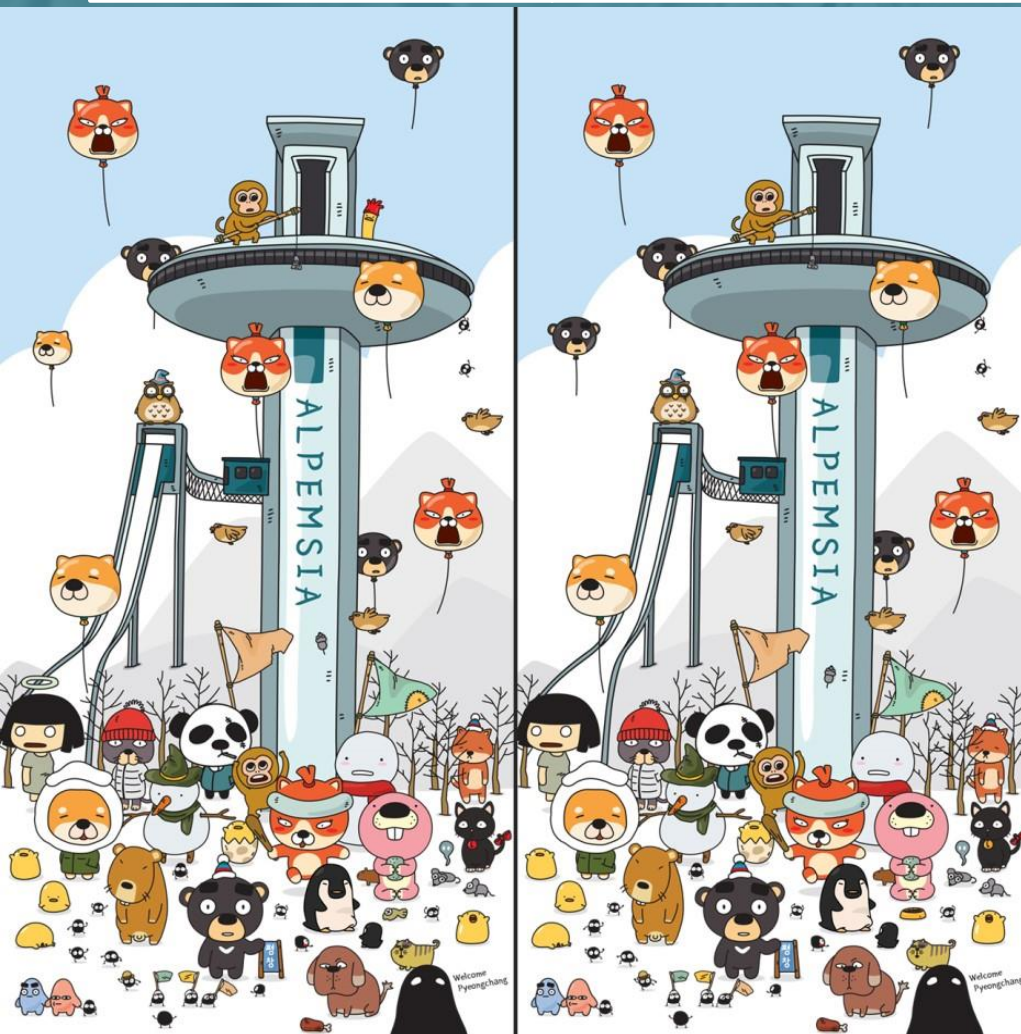
절취선

틀린그림찾기(11개)

이름 :

호실 :

호



- ♥ 틀린그림찾기 정답, 칭찬의 글을 홍보기획과로 보내주시면 매월 1분씩 추첨하여 매점상품권을 드립니다.
- ♥ 접수마감일은 9월 25일이고, 틀린그림찾기 정답과 칭찬의 글을 모두 작성하면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 ♥ 지난 호 당첨자
- 107호 유재택, 210호 허헌자

()님을 칭찬합니다.
칭찬사연을 자세히 남겨주세요

틀린그림찾기 출처 : <http://blog.naver.com/xiipego>

